

통권 제 190호

강남.라 00943

2563  
2019

08

계을 이야기  
음식에 대한 계을 (1)



함께 만든 100년  
장부출가생불한  
운봉길 의사



생활속 식물 이야기  
황새가 물고 은선물

#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 종조법설집

제2장 수행편 제4절 마음 p.167

## 마음

(5) 보리의 청량한 달(심월륜(心月輪))은 필경 공에서 노느니

중생의 (마음(心水))물이 고요하면 보리의 그림자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

(6) 심인(心印)은 곧 부처님이 인(證)증(證)하신 마음이니 심인(心印) 깨쳐 경을 믿고

그 스승의 말을 믿고 인(印)지(知)어서 과(果)받(受)음을 굳게 믿고 행하는데 모든 고통

물러가고 서원대로 되느니라 죽고 삶은 명에 있고 가난하고 천하거나

호부하고 귀한 것은 인(因)지(知)음에 있느니라 부처님이 우리들의 가정(家庭)을

설(設)하시되 안(安)을 닦지 아니하고 밖(外)을 보호(保護)하려함은 원래(元來)그릇(된) 것이라

복(福)이안에 숨(숨)아남(남)을 깨쳐 알지 못하고서 동(東)쪽이나 서(西)쪽에서 음(陰)과 같이

생(生)각(覺)함은 어리석은 것이니라 지(知)혜(慧) 있는 부(부)인은 곧 남(南)편(편)에게 복(福)이 되니

닦( 닦)고 깨( 깨)친 착(착)한 부(부)인 그 남(남)편(편)을 귀(貴)하게 하고 악(惡)한 이는 그 남(남)편(편)을

하(下)천(天)하게 하느니라



##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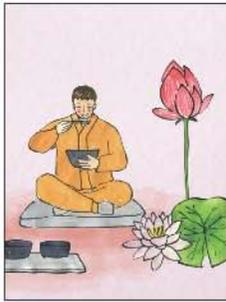
다르마 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 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불교이야기 04**

계학이란  
무엇인가  
화령 정사



**살다보면 18**

나누지 못한  
복숭아  
이옥경



**디딤돌 56**

세상을  
바꾸고 싶다  
지현 전수

2563  
2019

08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2 깨울이야기

18 살다보면

24 향유

30 산책

32 아름다운 세상

36 마음의 등불

40 생활 속 식물이야기

44 심선성취

48 함께 만든 100년

52 씨앗 한 알

56 디딤돌

60 새 이야기

64 거꾸로 보기

68 길따라 캄보디아

70 독자기고

72 결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꾸기

76 되짚어 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계학이란 무엇인가 화령 정사

재앙은 탐욕에서 중아함 소고온경中阿含 小菩薩經

음식에 대한 계율(1) 법경 정사

나누지 못한 복숭아 이옥경

오늘부터 1일 강동현

낮은 별 김대곤

'나 전달법'의 달인이 되기 위한 연습 묘원화 전수

취하나 깨나 다 임금님 은혜 오도일

황새가 물고 온 선물 제라늄-Geranium 이태용

자비慈悲 덕현 전수

장부출가생불환 윤봉길 의사 자성 전수

틸로씨의 여섯 가지 가르침 법상 스님

세상을 바꾸고 싶다 지현 전수

까치 정옥식

이불 공주는 누가 깨울까 2 박현희

도시 속에 살아 숨쉬는 고대문명, 앙코르 와트 고지연

자석사에는 이런 정사님이 계십니다 여순애

문지기와 개 법일 정사

자업자득自業自得 김재동

가책可責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 대화의 이익

당신이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아는 것만 반복하게 되지만  
만약 듣는다면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

### The Benefit of Conversation

When you talk,  
you only repeat what you know.  
But if you listen,  
you may learn something new.

- 글 : 달라이라마



## 계학이란 무엇인가

화령 정사

불교총지중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주교



### 수계와 파계(2)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이 아직 이르지 않아 수계식에서 계를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지난 잘못을 참회하고 악한 행위를 멈추고 착한 일만 할 것이며 그러한 것을 통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고 스스로 결심해도 계를 받은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앞에서 수계식을 통하여 여법하게 계를 받으면 계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더 크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계체를 형성해서 우

리를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계를 통하여 계를 지킬 것을 맹세하지만 현실생활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재가자들에게 있어서는 오계조차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살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모기약을 뿌리고 바퀴벌레약을 뿌리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다 살생입니다.

우유 한 모금만 마셔도 그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생명 있는 것들인데 우리의 위산에 녹아버리니 그것도 살생이라면 살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탕, 육개장을 사 먹어도 육식을 하게 되니 그것도 간접살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뚱뚱한 손님이 옷 고를 때에 잘 안 어울려도 날씬하게 보이고 잘 어울려야 한다고 해야지 입는 것 마다 안 어울린다고 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부하직원이 일을 서투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도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다음에는 더 잘할 것 아닙니까? 누가 선물을 주는데 썩 마음에 안 들어도 맘에 들어야 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지만 장사하면서 이익 많이 붙이는 것도 따지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넓은 땅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남의 것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나

만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흠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재회는 한정이 있는데 나만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은 다 남이 가지게 될 것을 내가 가로채는 흠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재가자로서는 오계조차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계를 주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수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 체리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살생하면 안 된다, 흠치면 안 된다 등등 계 조항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 무표업이 되어 남아 있게 되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옹어지면 또 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계체의 세력이 회복되어 다시 선<sup>●</sup>으로 되돌아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라는 것은 율과는 달라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규제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의 움직임이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율은 승단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계는 철저하게 지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사계<sup>●●</sup>'라고 하여 도저히 계를 지키지 못할 형편이 되면 일시적으로 계를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를 버리기 때문에 계를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회복되면 다시 계를 받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계란 것은 완전하게 지키기가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계라는 방법은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불교에서 이러한 편법을 쓰는 것은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계를 어겼다는 죄책감을 오래도록 남겨두어 도리어 그것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시적으로 계를 버려 그러한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도리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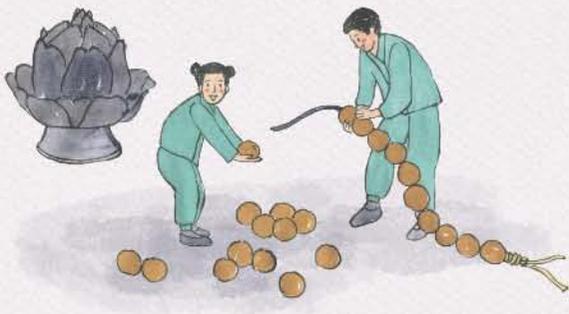
두 번째는 사람들은 계를 어기게 되면 파계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새 옷을 입고 놀면서 어쩌다가 흠탕물이 튀기 기라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옷에 흠이 묻건 말건 마구 참병거리며 노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순진한 처녀들이 어쩌다 정조를 잃게 되면 자기는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고는 유곽으로 빠져 마구 몸을 망쳐버리는 심리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계를 받고 스스로 굳은 결심을 하고 지키려고 하다가 어쩌다 계를 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를 아예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계를 어길 상황이 되면 차라리 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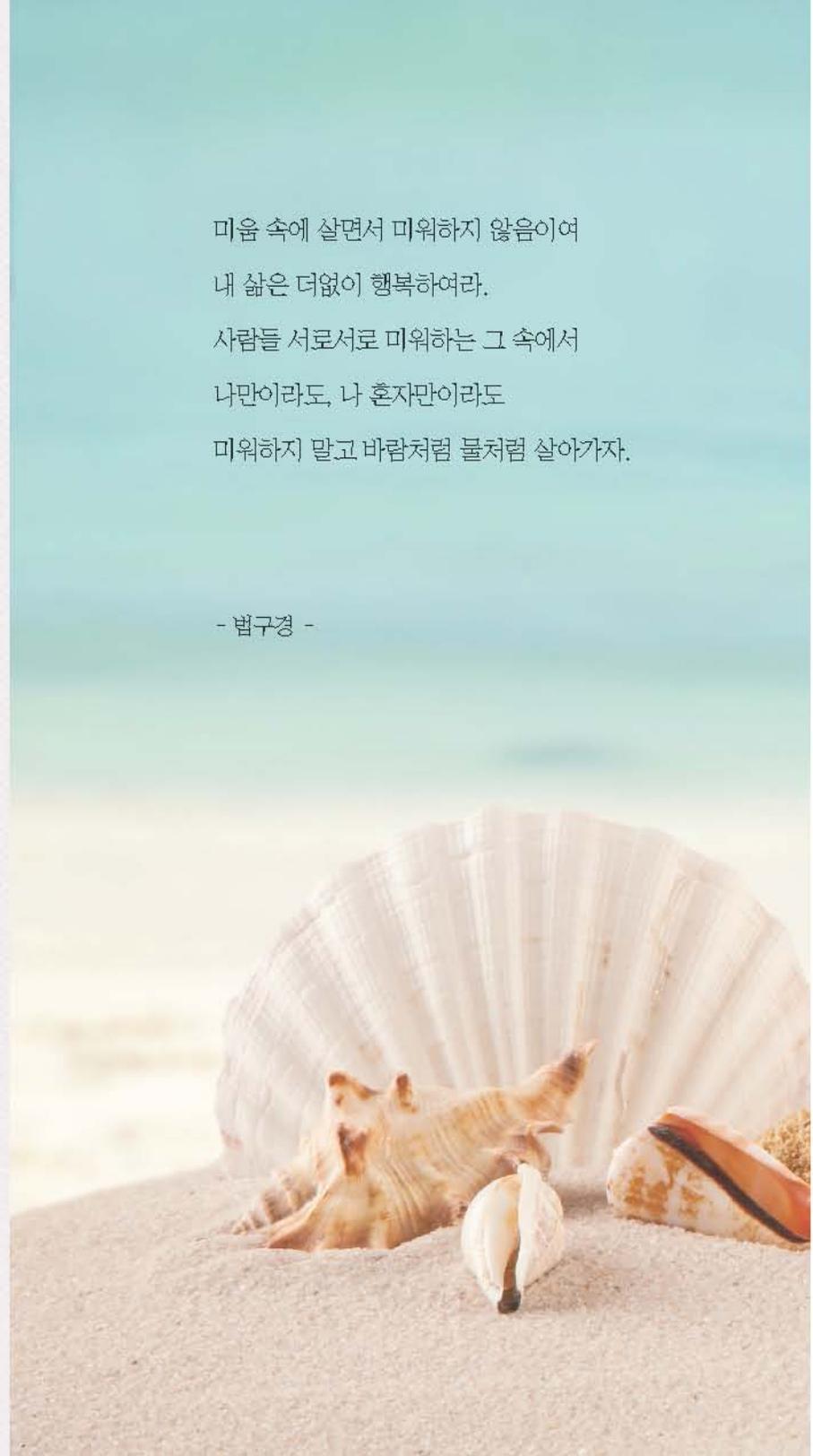
이렇게 사계라는 방편을 사용하는 것은 나약한 인간에게 계체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완벽해 질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실패를 하면서도 또 다짐을 하고 일어서는 것처럼, 비록 계를 어기더라도 다시 계를 받고 새롭게 결심을 굳혀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방지하고 선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수계는 거듭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



마음 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음이여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사람들 서로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자.

- 범구경 -



부처님께서 카필라성 밖에 있는 니그로다 숲에 머물고 계실 때였다. 사카족의 왕 마하나마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사히 받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와 같은 번뇌가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제 마음에서 버려져야 할 것이 아직 버려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소, 마하나마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도 당신 마음에서 가셔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만약 마음속에 그와 같은 번뇌가 말끔히 가셔졌다면 당신은 가정에서 살지 않을 것이며, 또 갖가지 탐욕에 허덕이지 않을 것이요.”

“탐욕이란 어디를 가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요. 탐욕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요. 우리들을 절망의 구렁이로 떨어뜨리고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요. 바른 지혜로써 그것이 그른 줄 알더라도 평안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탐욕에 쫓기고 마는 것이요. 그것이 그른 것

인 줄 바르게 알고 탐욕을 떠나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야만 탐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내 경험이었지만,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탐욕이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뜨리고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임을 알기는 알았었소. 그러나 평안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탐욕에 쫓기면서 지내왔던 것이요. 그 후 그것이 그른 줄 바르게 알고 평안한 경지에 이른 그때부터 비로소 탐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요.”

“탐욕에는 즐거움과 재앙이 있소. 탐욕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이 그것이요.”

“이 다섯 가지 탐욕에 대해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데 이것이 탐욕의 즐거움이요.”

마하나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



음식에 대한  
계율(1)

법경 정사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주교



청정한 계율 \_ 51

## 만족하게 먹고 나서 더 먹지 말라

부처님 당시에 출가 수행자들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었고,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금하였으며, 음식을 남겨서는 안 되었으며, 따로 음식을 두었다가 나중에 먹을 수도 없었고, 음식찌꺼기를 아무데나 버려서도 안 되었다. 음식과 관련해서 많은 계율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계율의 바탕에는 무소유와 함께 식탐<sup>執食</sup>이나 물욕<sup>物欲</sup>을 버려야 한다는 수행의 가르침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율에도 예외가 있었으니 그것은 병든 환자인 경우였다. 병든 환자는 술 찌꺼기나 고기 등을 먹을 수 있었고, 음식을 남겨두었다가 먹을 수도 있었으며, 때가 아닌 때에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다.

승가에 음식과 관련된 계율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바일제법에 해당된다. 바일제는 계를 어겨도 참회로써 죄가 멸하게 되는 조금은 가벼운 벌칙이 적용되는 계율이다. 음식과 관련된 계율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음식과 관련된 계율 가운데 ‘만족하게 먹고 더 먹지 말라’는 계율이 있다. 이를 족식계<sup>足食戒</sup>라고 한다. 이 계율이 제정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1일 1식법을 찬탄하시니 비구들이 그 말씀 듣고 하루에 1끼만을 먹었다.



그러나 비구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기만 했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비구들에게 다섯 가지 음식(밥, 국수, 건반, 생선, 고기)을 고루 먹고 한꺼번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노니 다섯 가지 음식을 받아서 배불리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병든 비구들은 이 다섯 가지 음식을 받아 놓고도 몸이 좋지 않아 마음껏 배불리 먹지를 못했다. 그리하여 또다시 초췌해졌다. 이에 부처님께서 다시 계를 제정하셨다.

“지금부터 병든 비구들에게는 여러 번씩 먹도록 허락하노니 병들은 비구들은 여러 번 만족스럽게 먹으라.” 그러나 병든 비구들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받았어도 다 먹지 못해 결국 음식을 버리니 까막까치가 와서 먹으며 시끄럽게 울어댔다.

이로 인해 부처님은 간호하는 비구가 병자의 남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허락하였다. “지금부터 간호하는 비구는 병든 사람이 남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또한 병자는 음식을 남기는 것을 허락하노라.” 그런데 그때 비구들이 이른 아침에 절에서 주는 밥을 받아 놓고도 마을에 내려가서 다시 걸식을 하여 밥을 먹었다.

그럼에도 아침에 받아 놓았던 밥을 다시 꺼내 다른 비구들에게 나눠 주니 다른 비구들이 만족히 먹고는 더 먹을 수 없어 남은 음식을 버리니 부처님께서 또다시 계를 제정하셨다.

“지금부터, 이미 받은 밥을 남기는 법을 비구들에게 알려주노니, 이 법을 하고나서 남은 밥을 다른 이에게 주어야 하느니라.” 밥 남기는 법이란 ‘대덕이여, 나는 이미 만족스럽게 먹었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아시고 보시오. 지금 밥 남기는 법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미 받은 밥을 꺼내어 조금 먹는 시늉을 하고나서 다른 이에게 주면서 ‘마음껏 잡수시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은 비구들이 음식을 절제할 줄 모르고 먹고, 음식을 보기 흉할 정도로 남겨서 버리므로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였다. “어떤 비구가 만족히 먹은 뒤에 공양요청을 받았을 때 밥 남기는 법을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밥을 주면 바일제가 되느니라.”

밥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병자는 한꺼번에 다 먹지 못하므로 남겨 두었다가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다. 다만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병자가 아닌 경우에 만약 밥을 남겼다면 반드시 ‘밥 남기는 법’을 행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



즉 이미 받은 음식을 다른 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밥 남기는 법’을 반드시 행한 경우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일제에 해당된다. 이러한 절차를 둔 것은 음식에 대한 절제와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그리고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를 비시식계(非時食戒)라고 한다. 정오를 지나서는 먹지 말라는 말이다. 이를 오후불식(午後不食)이라고 한다. 지금도 이 계율은 남방불교에서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비시식계(非時食戒)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문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 계실 때에 성 안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광대놀이를 하는데 난타와 발난타가 때 아닌 때에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광대놀이를 구경하다가 저녁 무렵에야 절에 돌아오니 ‘사문 석자가 늦게 돌아다닌다.’고 대중 스님들이 꾸짖었다.

그런데 그 뒤 얼마 있다가 카알루다인이 밤늦게 위의를 갖추고 절식을 나가 어느 임신한 여인 집에서 구걸코저 하니 마침 음식을 가지고 나오던 여인이 갑자기 내려치는 번개 소리에 놀라 결국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여인이 카알루다인을 향해 “귀신이다.” 하고 소리쳤다. 카알루다인이 말했다. “나는 귀신이 아니라 사문입니다.”

여인이 다시 소리쳤다. “사문석자는 자기의 배를 가를지언정 밤늦게 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가 때 아닌 때 밥을 먹으면 바일제이니라.”

때는 새벽 광명이 솟은 뒤로부터 한낮까지이고, 때 아닌 때는 그 이외의 시간을 말한다. 이 비시식계(非時食戒)는 출가자의 청정행과 품위유지를 위해 수행적인 차원에서 제정되었다기 보다 재가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



# 나누지 못한 복숭아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꽃밭머리 농원이리는 예쁜 이름의 과수원을 하는 시돈댁에서 상처 (윗가지)에서 딴 첫물 복숭아라면서 출하도 하기 전에 복숭아 한 상자를 보내 주시더니, 날씨가 좋아 단물이 흠뻑 들었다며 또 최상품 복숭아를 두 상자나 보내셨다. 이번에는 알맞게 여물어 쫄득하니 맛있는 찰옥수수가 함께 배달되었다.

해마다 여름이면 서너 차례씩, 잊지 않고 챙겨 주시는 그 마음이 황송할 만큼 고마우면서도 안사돈과 바깥사돈 두 분이 흘린 땀의 결실을 받아먹기만 하는 것 같아 염치가 없다. 그뿐인가, 어디. 철 따라 감자며 고구마에, 추수가 끝나면 온갖 농작물에, 하다못해 손수 따서 갈 무리한 호두며 알밤에 이르기까지 아들 며느리 편에 올망졸망한 보따리를 실어 보내시는 것도 모자라 택배로 보내 주기까지 하시니 그야 말로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긴 그것들을 받을 때마다 '나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지곤 한다.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그 말은 '내 아들은 처와 처복이 많구나.' 하는 믿음이기도 하다.

아직은 어색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들로 인해 맺어진 이 새로운 인연이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사돈댁과 허물없이 지냈으면 하는 게 나의 솔직한 바람이다. 더군다나 안사돈이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동기간도 없는 외로운 처지라 친구처럼, 피붙이처럼 지냈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인데, 딸 둔 입장이라 그런지 사돈 내외분께서 마냥 어려워만 하시니 붙임성 없는 나로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일 수밖에.

어쨌든, 연례행사처럼 올해도 몇몇 이웃집과 복숭아를 나눴다. 시중에서는 구경하기도 어려울 만큼 크고 다디단 복숭아에 대한 감탄도 감탄이러니와 사돈댁의 지극정성을 부러워하는 인사를 은근슬쩍 즐기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 아주머니 댁을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 가장 가깝게 살고,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와 두 팔을 걷어붙이는 순\* 아주머니를 빼놓은 까닭은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 된 막내딸이 돌아와 있기 때문이었다. 과도한 혼수 요구로 갈등을 빚더니 그게 빌미가 되어 결혼 생활도 불화의 연속이었던 모양이다. 사돈의 안하무인으로 인해 가슴앓이하는 순\* 아주머니에게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사돈댁에서 보내온 복숭아를 건네기가 어려웠다.

사돈은 혼인 관계로 맺어진 친척, 즉 인척이다.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사돈은 부처님 팔손만도 못하

다.',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 '사돈네 안방 같다.'라는 말처럼 실제로는 꺾끄럽기까지 한 것이 보통의 사돈지간이다.

하지만 사돈이라는 말이, 평생의 지기지우(知己之交)로 고려 때 여진을 물리친 고려의 도원수 윤관과 부원수 오연총의 아름다운 우정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여진 정벌 후 자녀를 결혼시킨 두 사람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각별한 우정을 나누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술이 잘 빚어진 것을 본 윤관은 하인에게 술동이를 지게하고 오연총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지난밤에 내린 비 때문에 물이 불어나 개울을 건널 수가 없었다.

안타까움에 밭을 구르다가 개울 건너편을 바라보니 오연총도 술동이를 옆에 두고 밭을 구르고 있었다. 오연총 역시 사돈 윤관과 잘 익은 술을 나누고 싶어 길을 나선 참이었다.

서로의 마음을 읽은 두 사람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등걸 나무(沙查)에 걸터앉아 술잔을 채워 서로에게 잔을 권하며 “한잔하십시오.” 한 후, “고맙소이다.” 하면서 머리를 숙여(頓首) 술잔을 받는 예를 표한 뒤 잔을 비웠다. 이십전십, 그 어떤 관계 못지않게 가까운 사이가 곧 사돈(姪婦)이라는 이야기이다.



본생담에 이르기를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 데,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으랴.'라고 했다. 재물이든 명예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실상 그리 많지 않다.

그것에 대한 집착이 죄를 낳고, 욕심이 불행을 부른다. 진실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인간답게 살다가 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아파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정현중 「방문객」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인해 딸을 얻고, 딸로 인해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아들과 딸을 나누어 가졌으니 사돈지간보다 더 좋은 인생의 길동무도 없을 것이다. 틀을 깨고, 격식이나 체면치레를 훌훌 벗어던지는 일,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들의 앞날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일이 아닐까.

혼인과 상중에 행하는 모든 예절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큰 도리라는 뜻에서 예법을 붙여 혼례례와 상례례라고 한다. 법법에 금

지히는 바가 있는 것처럼 예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혼례든 상례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정성껏, 예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다 저마다여서 법도 예도 무시한 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고, 빛나야 한다는 아전인수 격 욕심을 마다하지 않으니 그것이 불러올 불행을 어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순\* 아주머니에게 맛있는 복숭아를 거리낌 없이 나눠드릴 수 있는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주머니의 막내딸에게도 당장의 슬픔이 실패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





살다 보면 자기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가까운 사람이면 괴롭다. 직장에서 날마다 보는 사람이면 더 괴롭고, 그 직장을 그만 들 수 없을 때는 더더욱 괴롭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러느냐는 하소연을 할 테도 없고, 나한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의 속이 훤히 보이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도 답답하다.

‘어쩔 수 없지. 알맴지만 뭐...!’ 하고 속으로 생각해도 만날 때마다 속이 상한다. 자주 자주 사표를 쓰고 싶다.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단조로운 삶인데, 아무 것도 안 하고 뒷방 늙은이가 되어 불공만 하고 싶은 까닭이 아무래도 직장 생활 때문인 것 같다. 새벽까지 일을 하고 늦게까지 일을 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손해를 본 것을 나한테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웅졸해서가 아니다. 분명하다. 그저께는 심지어 비교당하기도 했다. ‘아... 이 나이에 비교 당하는 것은 어쩐지 짠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싸우지는 거냐?’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디다가 비교하는 거야? 완전히 비접한데?’라고 생각했다.  
 ‘나 안 볼 생각인가? 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너나 잘하라고, 큰 소리로 대들고 사표를 얼굴에다가 확 던져버릴  
 까 보다!’라고 생각했다. 성질을 죽이려고 잠시 딴 생각도 했다.

옴마니반메흠을 속으로 읊었다. 옴마니반메흠을 속으로 읊는 바람  
 에 뒷이야기는 못 들었다. 그 상황이 아주 치욕적이었다.

남편한테 말을 하면 속없이 당장에 사표를 쓰라고 하겠지만 나는  
 내가 조금 손해 보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 어차피 사표를 쓰  
 지도 못하는데, 내 자존심을 뭉개려고 말을 하는 그 사람도 뻔해 보  
 이고 이래저래 속이 말이 아니었지만 어찌랴. 출근은 했고 비교한 것  
 이 미안한지 내 눈치를 슬쩍슬쩍 보는 사람을 무시하고 일은 했다.

화가 계속 났다. 오래 알아 왔고 같이 일을 한 지도 오래라서 다 알  
 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 편이라고 착각하고 살았  
 다는 자각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해 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가 해 준 것만 기억하는 나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관계를 확  
 끊어버릴까? 하고 내적갈등을 겪기도 했다.

마음으로만 사나워졌다. 마음으로만 악독해졌다. 사무실에 내 편  
 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맥이 빠지기도 했다. 왜 자꾸 나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인가 싶어서 도끼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내적 갈등이 일어  
 날 때면 이것은 분명히 범문일 가능성이 높다. 전후 사정에 상관없이  
 화가 주체할 수 없이 나면 그것은 범문일 가능성이 높다.

억울한 생각이 들면 범문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저기 변명하고 하  
 소연하면 그것은 범문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배운 것이다. 그래서  
 불공을 다잡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범문이라는 것이 생각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마  
 음을 놓치기도 하고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공한다  
 고 유세를 떨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또 범문이다. 나는 지금 무슨 범  
 문인지도 모를 범문을 받고 있다. 오래 불공을 한 어머니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말씀해 주신다.

“부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 걱정을 하지 마라. 안달복달할 필요  
 가 없다. 그게 바로 니 손해다.” 또, 내가 손해 같아도 결국은 내가 손  
 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다. 맞는 말씀이다. 나한테 이득을  
 얻어도 다른 곳에서 손해를 볼 수 있을 지도 모르지.

그럴 때는 마음으로 ‘고소하다. 쌤통이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다  
 른 곳에서 손해를 안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한 것에 죄책감을 갖지  
 않겠노라고 생각했다. 속상하니까. 눈에 보이는 손해가 더 많은지 이



득이 많은지, 나도 꼼꼼하게 적어보고 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은 것을 해주었다고 생각할까 봐 화가 나지만 유치하다는 생각에 가 닿았다. '그래, 달마다 비싼 밥 사줬다고 생각하자. 그래도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자. 그 사람 덕에 나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니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속 넓은 사람인 척 했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나도 평소에 손해 안 보려고 눈알 뚜루룩 굴리고 있었을 지도 모르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알아챘을 수도 있겠지 싶다.

이번 일로 내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오른 임대료의 몇 프로를 내가 내는 것이니 사무실의 지분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내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으니 나 때문에 여럿이 편하다면 그걸로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자고 나는 염주 쥐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처럼 비교하는 것은 다음에는 진짜로 안 참겠다고 생각했다. 밤에 벌떡 일어나 염송한다. 생각 안하고 그냥 염송한다.

그러다가 문득 전수님이 도량 불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다. 불공을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이제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엄마가 불공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내

가 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조금 민망하다. 늘 엄마의 불공에 묻어가고 있다. 엄마의 불공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맞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급하게 엄마한테 불공해 달라고 매달리고, 아직도 나는 불공 하는데 있어서는 어른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오늘부터 도량 불공 1일이다. 그렇게 하니 손해고 뭐고 웅졸한 마음이 사라진다. 화가 나는 마음도 없어졌다. 아까운 마음도 사라졌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우쭐거림도 사라졌다.

다시 참회를 하고 불공하고 있다. 바글바글 끓어오르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분해졌다. 법문의 의미를 찾은 것 같다. ♣



속리산 아래  
어둠이 찾아들면

산사 처마 끝에 사는  
작은 백열등

어느새 별이 되어  
내게 말을 걸어온다.



## '나 전달법'의 달인이 되기 위한 연습

묘원화 전수  
벽룡사



### '나 전달법'의 5단계

1. **행동(관찰)**: 네가 ~했을 때
2. **나의 느낌**: 나는 ~했어
3. **나의 바람(욕구)**: 왜냐하면 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4. **부탁**: 네가 ~해주면 좋겠어.
5. **감사**

나의 ~을 들어줘서 고마워. 지금 ~느낌이야. 내가 정말 ~을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 나의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너와의 대화가 의미 있고 ~한 느낌, 알아차림이 있었어. 덕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고 고마워.

### '나 전달법'의 달인이 되기 위한 연습

#### (상황1)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1년 동안 연락이 단절되었던 친구를 만났다.

#### (너 전달법)

“넌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니?”

#### (나 전달법)

“① 널 1년 만에 보니 ② 나 울컥했어. ③ 네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 ④ 이제 모임 때 마다 얼굴 보자. ⑤ 너한테도 나 보고 싶었다는 말 들으니까 맘 상했던 것이 풀리는 느낌이야. 그렇게 표현 해줘서 고마워.”

① 1년 동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없어서 ②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했어. ③ 나는 네가 별 탈 없이 잘 지내길 바라니까 ④ 이제부터는 전화 못 받으면 꼭 문자 남기기. 해 줄 거지? ⑤ 해준다는 얘기 들으니까 안심 되네. 고마워, 친구야.

#### (상황2)

지금 시각은 밤 11시 40분. 매일 7시에 퇴근하는 남편이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연결되지 않고 문자 연락도 없다.

#### (너 전달법)

“당신 지금 몇 신줄 알아? 핸드폰도 꺼 놓고 뭐해? 전화는 받아야지.”

### (나 전달법)

- ① 지금이 밤 11시 40분인데 당신이랑 연락이 안 돼.
- ② 나 너무 걱정되고, 피곤해. ③ 난 당신이 안전하면 좋겠고,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그래야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
- ④ 문자 보는 대로 나한테 연락 줘. 늦어도 괜찮아. 꼭.
- ⑤ 정말 걱정하고 있는데 문자가 아니라 목소리 들어서 마음이 놓여. 고마워. 이제 잘게. 담에는 꼭 미리 전화 주기 약속했어. 우리 때문에 돈 버느라 고생이 많아. 여보, 고마워요^^

극락은 말이 필요 없는 곳이다. 뜻을 일으키면 그대로 행해지고 마음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상대의 뜻이 다 읽힌다고 하니 아직 수행이 미진한 나는 지금 극락에 태어난다 하여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꼭 그래서 만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서 사랑 받고, 존재로서 인정받고, 함께 행하고, 함께 나누며 살면서 행복한 느낌을 충분히 느끼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

경청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에서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다. 관찰 능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경청의 힘도 커진다. 이렇게 정어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수행 이전의 업대로, 습관대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수행자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

지를 의식하게 된다. 알아차림이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며, 게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과 공감으로 귀 기울여 듣는 힘도 길러진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요구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서로가 상생하는 결론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바른 말 수행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 말이라는 것은 본래 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을 바르고 좋게 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심으로 상대와 연결되고자 하는 바른 의도를 가지고 대화한다면 나의 진심이 상대를 움직일 것이다.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도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존중이 아닐까. ♣





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술잔을 들고 계단을 간신히 오르며 잠시 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승지가 그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술잔을 엎어버렸고 술잔을 다시 올리느라 결국 제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 일을 두고 오도일이 술에 취해 제사에 불경한 죄를 지었다 하여 탄핵 상소가 올라왔다. 당시 그의 주변에 있던 이들이 그가 취해 있지 않았음을 증언하면서 오도일을 파직하는 것으로 일단락 하였다. 하지만 숙종은 이 일로 그에게 술을 경계할 것을 타이르는 비망기(備忘記)를 내렸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도일은 술을 즐기다 고질(痼疾)을 이루었는데도 너무나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애석할 만하다. 기억하건대, 옛날 술을 경계하는 시(詩)에,

|         |         |
|---------|---------|
| 聖君寵極龍頭選 | 성군총극용두선 |
| 慈母恩深鶴髮垂 | 자모은심학발수 |
| 君寵母恩俱未報 | 군총모은구미보 |
| 酒如成病悔何追 | 주여성병회하추 |

하였는데, 오도일이 만약 ‘성군 은총 보답 못하고 병이 들면 후회한들 어이하랴.’는 구절을 두고 늘 깊이 유념한다면 어찌 태양 낭패를 초래할 리가 있겠는가? 『숙종실록(肅宗實錄) 23년 4월 28일』 오도일이 3년 넘게 술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정문일침(正門日沈)과도 같았던 숙종의 이러한 하교 때문이었으니 숙종 말고 누가 그의 금주(禁酒)를 풀어줄

수 있었겠는가. 3년 뒤 숙종이 내린 어주(御酒)가 그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바로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아마 이날 임금이 술을 하사하지 않았다면 오도일의 금주가 언제까지 이어졌을지 알 수 없다. 국화를 보면 도연명(陶淵明)이 생각나고 이어 국화꽃잎을 술잔에 띄워 근심을 잊었다는 그의 고사(故事)를 연상함과 동시에 술 생각에 입맛을 다시게 마련인데 이처럼 강한 유혹을 앞에 두고도 술잔을 대하지 않는다고 시에서 다부지게 읊조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임금은 그가 오랫동안 금주하고 있는 것과 입직하느라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안쓰럽게 여겼으리라. 이러한 은혜를 입고 감읍(感泣)하지 않을 신하가 어디 있겠는가.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팀 변구일 선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 황새가 물고 온 선물 제라늄 - Geranium

이태용  
원예 교육가



### ✿ 그제 불만 주었는데

“자, 지금부터 제라늄과 라벤더 가운데 하나를 고르세요. 고른 식물은 자기가 책임지고 잘 길러서 1년 후에 서로 보여 주는 겁니다.

누가 제일 잘 길렀는지, 혹시 죽인 사람은 없는지 비교해 보면 재미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제라늄은 알아서 잘 크는 편이고, 라벤더는 좀 까다롭습니다.”

일본에서 원예학교에 다니던 시절, 봄학기 첫 수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은근 라벤더가 마음에 들었지만,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에 덩석 제라늄을 집어 들었다.

1년 후 화분을 가져올 때 달랑 빈 화분만 가져오기는 싫었으니깐.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게 된 제라늄은 그 후 1년 동안 가족과 사이 좋게 지냈다. 가져올 때에 비해 몰라보게 몸집도 커졌다.

“우리 아이는요, 학원에도 못 보내고 남들처럼 신경도 못 써 줬어요. 해 준 거라고는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밥 챙겨 준 것밖에 없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일류 대학에 보낸 부모의 심정. 그 당시 제라늄에 대한 나의 마음이 그랬다. 햇빛 잘 드는 베란다에 놓고 물만 주었을 뿐인데 멋지게 잘 자라준 제라늄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른다.

### ✿ 제라늄과 황새의 공통점

제라늄은 사철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영하만 아니라면 비교적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이다. 빨강, 하양을 비롯해 꽃 색깔도 여러 가지. 게다가 품종에 따라 다양한 잎의 무늬도 제라늄을 더욱 멋들어지게 한다.

이런 매력 때문일까? 서양에서는 제라늄을 건물 꾸미는 식물로 많이 사용한다. 아무리 낡고 오래된 건물이라도 창가나 벽, 출입문에 제라늄

이 꾸며져 있으면 금세 환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이런 미술사 제라늄과 꼭 빼닮게 생긴 새가 한 마리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 되었고, 서양에서는 우정과 끈기를 상징하는 새. 바로 황새이다. 새와 꽃이 어떻게 닮을 수 있냐고? 제라늄의 열매와 황새의 부리가 닮은 꼴이다. 제라늄은 꽃이 지면 그 자리에 길쭉한 모양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의 생김새가 황새 부리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길쭉한 부리를 가진 새는 황새 말고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서양 사람들은 제라늄 열매에서 황새 부리를 보았을까? 그건 아마도 황새라는 새가 품고 있는 좋은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이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느냐?”고 물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로 말한다. 그런데 유럽은 대개 “황새가 아기 바구니를 물고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보면 서양에서 집을 꾸밀 때 제라늄을 많이 쓰는 것도 혹시 황새와 관계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황새가 아기라는 축복을 몰어다 주듯이 제라늄이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닐까? 창가에 매달아 놓은 제라늄이 황새가 되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 ❁ 축복은 모두가 나누는 법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꽃으로 집 밖을 꾸민다는 게 낯설기만 하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많이 살다보니 ‘집 밖’이란 개념이 희박한 탓도 있고, 뭔가를 집 밖에 드러내 놓고 꾸미는 게 어색한 탓도 있다. 하지만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으니 집 밖에 내놓아 보자.

대문 앞에 나란히 세워 놓아도 좋고, 창문에 매달아 놓아도 좋다. 분명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화분을 내놓은 집 주인은 물론이고, 그 집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 행복해질 것이다.

혹시 또 아나요? 어느 날 황새가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을 우리 집에 몰어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





자비<sup>慈悲</sup>는 상대를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sup>慈</sup>는 사랑하는 마음, 비<sup>悲</sup>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불자로서 불교의 기본정신인 자비를 지니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주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보시로서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행동이나 말, 마음 씀씀이로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는 물질적으로 짧은 순간에 끝나지만, 행동이나 말, 마음은 상대를 따뜻하게 하여 오래도록 남습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자비스러운 행동입니다.

자비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베푸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자비를 베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 차별, 구분, 친소<sup>親疏</sup> 관계에 따라 자비도 달라집니다.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를 포장한 가식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자비는 참다운 자비가 아닙니다. 단지 자비를 흉내는 것일 뿐입니다. 진실성이 없어 상대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없는 자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자비, 즉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위하는 척하고, 당사자와 단 둘이 있을 때는 무시하는 행동은 위선이며 무자비입니다.

그런데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에 대한 자비란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지니고 자신에게 관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자신에게 빗대어 말한다면,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자비이며,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고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을 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관대한 것이 비비입니다. 우울한 마음, 외로움,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비비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자비심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속 고통을 덜어내어 기쁜 마음을 갖는다면, 자신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 상대에게 훨씬 더 애정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내면을 잘 닦으면,

밖으로 향하는 자비가 완벽한 자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비를 가장 쉽게 설명하며 비유한 내용이 경전에 많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자비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곧 자비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그 마음을 지속하고 있을까요? ↓



장부출가생불환  
윤봉길 의사자성 전수  
법성사

##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사나이 대장부 집을 떠나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지 않는다. 1932년 12월 19일 25세 젊은 나이에 순국하신 윤봉길 의사...

농촌계몽운동가로 활동하시고 농촌의 계몽 또한 나라의 독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아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독립 운동을 위해 떠나던 중국 땅으로 건너가신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의 의거 소식을 듣고 난후 조국 독립의 재단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김구 선생을 찾아가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던 어느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과 일본군의 상해사변 전승 기념식이 상해 흥커우 공원에서 거행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핵심 전범들이 다 모이는 이 자리의 거사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와중에 하늘의 뜻인지 도시락 지참이라는 공지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사를 위해 도시락과 수통으로 위장한 폭탄을 만들어 거사 준비를 마친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과 마지막 조반을 드시면서 김구 선생의 낡고 오래된 시계를 보고

“선생님 새로 산 6원 짜리 시계인데 저랑 바꾸시지요.”

“내 시계는 2원 짜리네.”

“선생님 저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 시계는 한 시간밖에 쓸 수 없으니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결국 윤봉길 의사의 뜻대로 시계를 교환한 두 사람...

거사 당일 흥커우 공원은 수많은 일본인과 일본 군인이 운집하였고 삼엄한 경계가 겹겹이 쳐져 있었는데 식이 끝나갈 무렵 윤봉길 의사는 기회를 엿보다 단상으로 뛰어 들어가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 상해 총사

령관과 해군 중장 등 많은 일본군이 죽거나 다리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쾌거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만주사변 등으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중국은 일본을 처단한 윤봉길 의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총통 장제스는 의거 소식을 듣고 극찬에 극찬을 하며 “중국 백만 대군이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며 무관심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점점 쇠약해지고 침체일로에 빠진 임시정부가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도 윤봉길 의사의 힘이 컸던 것입니다.

거사를 계획한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되었고 장제스 중국 총통은 김구 선생을 중국 정부로 초청하여 한국 독립운동의 후원자가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의 큰 획을 그은 윤봉길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너무나도 가혹한 고문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 형틀에 매어 총살로 순국하셨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일본에 의해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졌지만 광복 후에 조국으로 모셔와 효창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롯이 조국의 독립만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난 윤봉길 의사...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 걱정이 앞섰을 젊은 청년 윤봉길은 거사를 며칠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담아 쓴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 강보에 싸인 두 병정에게

- 아들 모순<sup>模舜</sup>과 담<sup>潭</sup>에게 -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자 동양으로는 문화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는 프랑스의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미 죽음을 각오한 채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당부... 두 아들에게 남긴 윤봉길 의사의 유언은 8.15광복절이 다가오는 8월 어느 날 저의 가슴을 찡하게 만든 가슴 아픈 시연이 되었습니다.... ♣

## 틸로빠의 여섯 가지 가르침

법상 스님



티베트 불교 교파 카규파의 창시자 나로빠에게 그의 스승 티로빠는 여러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 이 불법공부에 대한 핵심을 설하는 유명한 여섯 마디의 가르침이 유명하다.

살펴보면, 첫째는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둘째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말라, 셋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지 말라, 넷째는 어떤 것도 탐구하거나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다섯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말라, 여섯째는 그저 쉬라이다. 이 여섯 마디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이 마음공부의 핵심을 아주 적절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첫 세 마디 말이다. 과거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이다. 과거나 미래, 현재라는 것은 전부 환상일 뿐, 실체가 아니다. 주로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하면서 과거를 들추길 좋아한다고 한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미래를 상상하며 부푼 꿈을 꾀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를 향한 그 모든 기억과 상상은 한낱 분별망상일 뿐이다.

물론 필요할 때 잠시 필요한 만큼의 기억을 꺼내와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미래를 계획할 필요는 있다.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이 전부 헛된 망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생각은 실제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에 일어나는 생각 또한 망상일 뿐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과거 기억을 꺼내와 현재와 비교 대조함으로써 현재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들은 있는 그대로의 생생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할 뿐이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는 현재를 경험하는 이 생생한 순간에조차 현재에 깨어있지 못한 채 과거와 비교분별의 생각 속 망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어떤 것도 탐구하거나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인데, 이 또한 현실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까지 탐구나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이 공부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아주 필수적이며 중요한 가르침이다.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하면서도 세속의 습관을 못 버리곤 한다. 생각으로 헤아리고 탐구하는 버릇이 그것이다. 수행에서는 가장 독이 되는 것이 바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이 법의 세계는 생각이나 의식으로 가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라는 분별, 알음알이, 생각, 망상이 꿈쩍 못하고 딱 막힐 때가 되어야 그 너머에 있는 진리가 드러난다는 점

이다. 다섯 번째도 비슷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어떤 신비체험이나 삼매나, 깨달음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고 만들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수행은 무언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이미 있는 것이고, 수행은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고 만들려고 애쓰는 동안에는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깨달음을 탐구해도 안되고, 만들어내려고 추구해도 안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여섯 번째 가르침에 그 답이 있다. 그저 쉬어라. 그 모든 분별망상, 생각, 조작, 탐구, 추구를 몽땅 몰록 쉴 때 진리는 드러난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 세상을 바꾸고 싶다

지현 전수  
자석사



세상을 바꾸고 싶다  
방귀희

p84

긍정적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 손질된 정원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듯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긍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

p159

우리 사회에는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마음의 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다. 마음의 장애가 지속되면 우리는 불행해질 것이다. 마음의 장애가 더 무섭다. 겉으로 드러난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p213

나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행운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말이다. 그래서 이제는 슬픔이 두렵지 않다. 슬픔은 곧 기쁨의 전조 현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슬플 때 기쁨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슬픔에 허둥대느라 그런 생각을 못한다. 물론 슬플 때는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때일수록 기쁨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몇 년 전부터, '종단 복지 이사'라는 직함으로 일 년에 두어 번 이사회에 참석할 일이 생긴다. 처음 이사회에 참석한 날,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영 어색하고 난처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있을 때 환한 웃음과 밝은 에너지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회의장으로 들어오시는 작가님을 대면하게 되었다.

사의 이사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하셨다. 딱 보기도도 중증 장애의 신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밝은 표정과 또렷한 목소리가 참 인상적인 분이셨다. '저런 몸을 하시고도 어떻게 저리 밝을 수 있을까?'하는 호기심이 있었는지 회의 전에 간단히 소개받은 성함과 이력을 돌아오는 길에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여고 수석입학, 대학 수석졸업 등의 화려한 학력에 방송작가이시기도 하고 1991년 유일한 장애인 문예지인 '솨대문학'을 창간 발행하여 지금까지 장애인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다.

또한 대학 출장과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익 보호와 행복 찾기에 열일을 하시는 그야말로 대단한 분이셨다. 종단 일에 협력해주시는 분이니만큼 책을 사보는 것도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어떤 글을 쓰시는지 궁금도 하여 책 두 권을 주문해 두었는데 이번 기회에 읽게 되었다. 책 속엔, 장애를 겪고 살아오는 동안 직접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적혀있다.

역시나 문체는 밝고 건강하다. 몇 번 뵈 적 없지만 작가의 목소리나 표정이 고스란히 느껴져 입가에 웃음을 살짝 머금고 읽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 평소 장애인에 대한 나의 무관심과 잘못된 생각들이 참으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나 역시 정상적인 신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전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면 마냥 달리고 싶다. 세상을 향해 마음껏 달리고 싶다. 다시 태어난다면 하늘을 안고 싶다. 두 팔로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 보고 싶다.' 라는 독백이 마치 신체 건강한 우리의 당연한 행동들이 얼마나 감사로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따끔한 매질을 주는 듯해 이품과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스쳐가는 대부분의 장애인을 대하는 편견과, 그들에게는 부당하게 제도화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할 만치 세상에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밝고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비록 신체의 장애를 겪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건강함이 느껴진다. 왠지 뵈 때마다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지던 이유를 알 듯 하다. 새삼스러운 반성이지만 정상적인 몸으로 마음은 많은 장애를 겪고 있었던 건 아닐까. ▲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에어컨 가동을 위해 사무실의 모든 창문은 연일 뽕뽕 닫혀 있다. 이제는 햇살을 피하기 위해 아예 블라인드까지 내려져 있다. 덕택에 최근 들어 창밖을 내다보는 일은 드물어졌고 덕택에 눈요기꺼리도 없어지고 말았다. 오로지 컴퓨터 모니터와 우렐 뚫어져라 지켜보는 시계만 결눈질로 간혹 볼 뿐이다. 그러던 오늘, 창호지에 달빛 스며들 듯 블라인드 너머로 까치들의 날카로운 소리가 스며들어 왔다. 얼른 블라인드를 걷고 창을 열어 고개를 내밀어 보니 참매가 눈에 들어왔다. 주위엔 온 동네의 까치 떼가 몰려들어 짓어 되며 시위 중이었다. 까치 덕에 오늘은 좋은 구경을 했다. ‘역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오는구나’ 싶었다.

어릴 적 할머니께 “까치가 울면 왜 손님이 와요?”라고 여쭙 본적이 있다.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까치는 영특해서 동네사람 얼굴을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혹 모르는 사람이 오면 자기 새끼 잡아갈까봐

우는 거란다.”라고 하셨다. 그때 할머니께서 주신 까치 얘기는 달에 산다는 방아 찼는 토끼와 함께 머리가 아닌 내 가슴에 깊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얼굴로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까치 종류는 까치와 물까치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들과 형태와 생태가 다른 어치가 있다. 어치는 흔히 ‘산까치’로 불린다. 어치와 물까치, 까치 모두는 까마귀과<sup>㉮</sup>에 속하기는 하지만 사실 생태나 형태적으로 조금은 거리가 있다.

까치와 어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 폭 넓게 분포하는 반면 물까치는 동아시아 지역과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이베리아 반도에 분포한다. 까치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검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무늬를 지녔고 충을 가진 긴 꼬리가 특징적이다. 물까치는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형태를 띠며 몸은 전체적으로 옅은 회색이며 하늘색 날개와 꼬리 그리고 짙은 검은 색의 머리를 지닌 단아함을 지닌 아름다운 새이다. 이베리아 반도에 서식하는 무리의 경우 고려시대 고려 상인들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며 실제로 고려 상인들이 거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전자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국내 무리와 이베리아에 서식하는 물까치의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까치는 예로부터 우리 문화와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까치 소리는 반가운 손님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서도 까치 소리는 행운이나 소식을 의미한다고 한다. 번식을 할 때 하나의 배우자만 선택을 하여 의리를 아는 새로 인식되어 많은 우화에 등장하기도 하고 민화를 비롯하여 노래에도 곧잘 등장하는 새이다.

나라새(국조)로 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까치에 대한 옛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졌다. 급격히 늘어난 개체수에 의해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정전 사고까지 빈번하게 일으키게 되자 '문제아', '골칫거리'로 전락하여 많은 미움을 사고 있다. 급기야 까치 다리 하당 현상금을 걸게 되었고 온 나라가 까치와의 전쟁 중이다.

이처럼 까치가 길조에서 '유해조수 구제 대상 1호'로 까지 지목된 것에는 그들의 영리함에서 비롯한 환경적 적응능력도 한 몫을 했겠지만 인간의 탓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간에 의한 생태계 질서 파괴가 주된 이유이다. 일본과 제주도의 까치를 예로 보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이다. 제주와 일본에는 원래 까치가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1964년에 50여 마리가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것이 불과 40여년 만에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제주도 전역에 걸쳐 수만 마리가 서식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과거 임진왜란 때 도입된 것이 500여 년이 지났지만 큐슈 지방의 사가, 나가사키, 후쿠오카 지역에만 국한되어 소수가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까지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일본의 까치가 크게 번성 못하는 이유는 경쟁자인 까마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와 반대로 까

마귀가 독세하여 농촌과 시골을 장악하고 있기에 경쟁에서 밀려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서는 도입 당시 경쟁자가 없었다. 1964년 이전에도 제주도에 까치를 도입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실패하였다고 한다. 경쟁자인 까마귀의 번식공간인 산림이 훼손되고 서식 개체수가 점점 줄어드는 대신 까치의 경우 전봇대 혹은 철탑에서도 번식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대립의 균형은 깨어지게 되고 게다가 우리나라 전역의 마을 주변에 서식하던 구렁이나 참매 등 천적마저 포획되거나 서식지 파괴로 인해 줄어들어 따라 생태계 내에서는 개체수 제어의 범위를 넘어 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까치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포획이 개체수 조절의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경쟁자와 천적이 서로 견제하며 어우러진 생태계의 건강성을 복원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궤도를 벗어난 세상에 적용한 탓에 마치 한강의 괴물 취급을 받고 있지만 까치에 대한 맘의 창을 열고 화해의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우리는 까치밥을 남겨 주었고 까치 소리에 맘 설레었다. 그리고 늘 새해 아침은 까치와 함께 했었다.

닫힌 창문을 열고 다시 까치 소리를 들어보자. 그 소린 예전 그대로다. 경쾌하고 힘이 있고 맘 설레게 한다. ↓

## 이불 공주는 누가 깨울까 2

-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박현희  
사회과교사



### 알바 이불 공주

두 번째는 알바 이불 공주이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일한다. 알바 이불 공주들은 늘 몸이 고단하고 잠은 부족하다. 그러니 학교에서라도 잠을 자 두지 않으면 배겨 낼 재간이 없다. 이들은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월급 떼이면서 일을 한다.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한다거나 가게에 보탬을 주었다는 미담도 간혹 있지만, 이들이 일을 하는 까닭은 대부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이다.

고등학생에게도 돈은 필요하다. 그 돈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들, 즉 새 옷이나 신발, 가방이라든지, 최신형 핸드폰, 나아가 중고 오토바이라 할지라도 무턱대고 나무랄 수는 없다. 힘겨운 노동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런 물건들을 갖고 싶은 욕망을 키워 준 것은 우리 어른들이니까.

사정이 어찌되었든 이들은 저녁 내내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 낮에는 잔다. 잠을 자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으니까. '청소년 알바를 금지해야 한다.'하는 명령된 생각은 삼키는 것이 좋겠다. 청소년들도 돈을 벌어야 하는 사정이 있

다. 어떤 이들은 고등학생의 노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학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릴 때부터 돈맛을 알아서 알바를 하러 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고등학생의 노동은 우리 경제의 주요 부분이 되어 버렸다. 피자, 치킨, 자장면을 우리 집에 신속히 배달해 주는 사람은 고등학생 노동자들이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주는 것도, 롯데리아, 맥도널드에서 “어서 오십시오.”를 외치는 것도 고등학생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값싼 노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저렴한 가격에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알바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법이 정한 최저 임금이라도 지급하도록 사회적인 감시를 충실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소비를 부추기는 한 이들은 계속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고 싶은 어떤 것을 열망할 것이고, 그러는 동안 무리한 알바는 계속 될 것이다.

## 묻지 마 이불 공주

세 번째는 묻지 마 이불 공주이다. 이들은 그냥 잔다. 이불 공주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 묻지 마 이불 공주이다. 학교는 교육 과정 자체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지가 오래되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미덕으로 평가된다.

이런 학교에서 자기 성적으로 제대로 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

능함을 그도 잘 알고 있다. 이불 공주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과외 등의 살벌한 경쟁에서 진작에 밀려난 채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이불 공주에게 존재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 적극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전략을 취해 스스로를 방어한다. 경쟁에서 뒤쳐진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그의 긴 잠을 통해 웅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왕자님의 키스로 공주님이 깨어난 것도 별로 놀라운 마법은 아니다.

공주님은 왕자님의 키스에서 새로운 희망을 알아챘을 것이다. 자신을 무력감의 탑에서 꺼내 줄 사람, 웃고 울고, 사랑하고, 지지고 묶고, 행복과 불행을 느낄 수 있게 해줄 누군가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을, 왕자님이 공주님의 나라와는 무관한 외부인이라는 것은 공주님을 탑에 가두는 데 공모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묻지 마 이불 공주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다.

꿈을 꾸는 것을 허락하는 사회이다. 그에게 관심을 갖고 소중하게 여겨 주는 누군가의 존재이다. ↓



## 도시 속에 살아 숨쉬는 고대문명, 앙코르 와트

고지연  
통리원 교무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란 바로 이걸 말하는 거구나 싶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십여 명이 함께 몸을 부대끼고 있었고, 언덕길을 오를 때면 차량이 힘을 쓰기 위해 에어컨을 잠시 꺼야한다고 했을 때, 어딜 가나 시원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고국이 그리운 순간이었다.

한국의 여름철 더위와 비교할 수 없이 뜨거운 햇볕과 습한 기운은 땀이 주룩주룩 흐르게 하였고, 눈을 뜨고 제대로 하늘을 마주하기 어려울 만큼의 작열하는 태양이 있었다. 30분 정도 먼지바람을 뚫고 도착한 곳에서 폭포를 보고 도심 속 앙코르와트로 이동하였다. 바다를 의미하는 고요한 해자 위에 만들어진 긴 다리를 건너고 돌을 깔아놓은 참배로를 지나자 중앙사원의 모습이 보였다. 마침내 마주한 앙코르 와트의 첫인상은 압도적인 웅장함이었다. 12세기 초 건립된 앙코르 와트는 크메르 제국의 건축과 예술이 집대성된 걸작으로 손꼽힌다.

세계의 중심이며 신들의 자리를 뜻하는 수미산에서 큰 돌을 해로로 옮기고 코끼리 수레에 실어가며 옮겨와 이곳, 시엠립에 지었다고 한다. 당시의 기술력에 비해 너무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기에 신들이 내려와서 함께 지었다고도 전해지며,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넓은 직사각형으로 왕의 목욕탕을 만날 수 있다. 왕은 신성하게 여겨졌기에 왕이 목욕한 물을 내려 보내면 백성들이 물을 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드넓게 연결되어 있는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치 고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마다 설렘이 묻어났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마치 속세의 시간을 벗어나 고대문명을 걸어다닌 듯한 오묘한 기분에서 헤어났다. 건축물들이 마치 유기체처럼 어우러진 사원을 나오며 웅장함에 이어 내 마음속을 자리 잡은 감정은 세월의 풍파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앙코르 왕조가 15세기 멸망함에 따라 앙코르와트 또한 정글 속에 묻혀버렸으나, 1860년경 다시 재발견되었고 이후 전쟁과 약탈로 인해 전체 유적의 70%가 소실되거나 훼손되었다. 인도, 일본, 북한, 독일 등 각국의 지원으로 복원에 힘을 쓰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복구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기에도 등장할 만큼 국가의 자존심이자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불리는 앙코르 와트가 이토록 훼손된 것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바로 전쟁으로, 그 안에는 약탈과 도난이 있었다.

빈곤과 결식으로 인해 구걸이 당연한 아이들, 약탈과 도난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 고요하게 살아 숨쉬며 여러 감정을 일으키던 앙코르 와트. 처음 마주하였을 때 상상하기 힘든 웅장함으로 감탄을 선사한 앙코르 와트는, 그곳을 뒤로하는 내게 한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거움을 안겨주었다. ▲



## 자석사에는 이런 정사님이 계십니다

여순에  
자석사교도

요즘 난 방생법회 때 합창 할 노래를 외우느라 힘이 듭니다. 합창단에 늦게 들어가서 외워야 할 노래들이 많습니다. '자비 방생'과 '내 마음이 부처라면' 두 곡의 가사를 외어야 하는데, 어렵지만 참 좋은 가사라 생각됩니다.

우리 자석사에는 노래의 가사처럼 자비롭게 보살을 위하는 도우 정사님이 계십니다. 정사님이 자석사에 오신지 1년하고 반년을 넘기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말씀 없이 미소를 지으시며 불법 수행에 임하시면서 보살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신다고 언제나 바쁘십니다.

염송하시는 틈틈이, 텃밭을 일구는 보살이 있음 밭일을 도우시고, 죽순을 캐는 등 뒷산에 올라가 할 일이 있는 보살에게는 혼자서는 힘들다며 같이 동반해 주십니다. 제가 꽃을 꺾으면 지나치시는 길에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살님들은 이는지 모르는지.....  
언제나 바쁘신 정사님을 뵈고 오면 마음 한켠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정사님! "교도들을 돕고자 하는 모습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교도들과 함께 정진하시고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정사님.... 어쩔 수행의 참 모습을 보여주시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여 주변의 도움에 감사를 가지지 못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이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깃들어야 하는 지를 받는 이는 알기가 힘듭니다. 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좀 의외의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식사 대용으로 계란을 삶아 먹을 때 계란에게 무척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한 끼 양식이 되어 주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끝없는 욕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몰라 스스로 고행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사는 이가 부처라"고 노래가사에 있습니다. 자석사에는 나 없는 마음을 가진 정사님이 계십니다. ♣



## 문지기과 개

법일 정사  
수인사주교



어떤 문지기가 특하면 같이 문을 지키고 있는 개를  
몽둥이로 두들겨 뺐다.

개는 때를 맞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개깅거리며 울었다.

지켜보던 새가 물었다.

“이런 불쌍한 멍멍아. 저 사람이 왜 널 때리는 거니?”

이에 개가 말했다.

“내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걸 차마 눈뜨고 못보겠나 보지-”



## 시뻘거리

개가 한 마리 있었다. 그 개의 주인은 개에게 가끔 이렇게 말  
하곤 했다. “이 더러운 놈의 개새끼가. 저리가.”

그 개는 주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을 지경이  
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욕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 개는 마침내 맑은 연못에 침병 뛰어들어 몸을  
흠뻑 적셔 가지고 나왔다.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젖은 몸으로

주인에게 달려간 개는 꼬리를 사랑살랑 치며 말했다.

“저 좀 봐주세요. 제 털이 싹 달라졌지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말라비틀어져 있던 털이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서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그러자 주인은 더욱 화를 내면서 욕을 퍼부  
었다. “이놈의 더러운 개새끼가 - 저리 가지 못해.” 개가 젖은

몸을 들이대고 흔들어 대는 바람에 주인에게 온통 더러운  
물이 튀었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겐 죄 없기가 이렇게 힘들다. 눈에 띄는 것들이  
죄가 되고 시뻘거리가 된다. ▲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신의 업은 자신에게 되 돌아온다는 말이다. 알다시피 업(業)이란 범어 카르마(karma) 내지 카르만(karman)의 번역어로 몸과 입, 의지로 짓는 언행을 뜻한다. 자업자득은 언행이 야기한 결과가 자기에게 되 돌아오는,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네가 어떤 존재인가는 네가 전생에 했던 일이 만든 것이고, 다음 생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만들 것이다.”라는 말은 이런 생각을 잘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다. 업이라고 불리는 언행은 이처럼 다시 몸, 입, 의지로 되 먹임(피드백, feedback)되어, 이전에 했던 것을 좀 더 쉽게 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성향’을 만들어낸다.

업의 힘은 각자의 삶을 어떤 영역 안에 머물게 하고, 어떤 궤도를 돌며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하게 만든다. ‘정체성’이라고도 번역되는 ‘동일성(아이덴티티, identity)’은 이런 업의 힘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자신에게 되 먹임되는 과정에 그때마다 만나는 조건의 차이를 집어넣는다면, 그 조건의 차이는 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즉 능력이나 성향의 변화를 야기한다. 연기적 조건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업의 힘에 끼어드는 빈틈이고, 변화를 만드는 여백이다. 학습이란 언행의 결과가 자신의 잠재력으로 되 먹임되는 업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이다. ‘딥러닝(Deep Learning)’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의

학습도 그렇다. 바둑을 두든 청소를 하든, 자신이 한 판단의 결과를 자신의 능력으로 되 먹임하여 판단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바둑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예상외로 이세돌에게 이김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6년 3월 중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Tay)는 인간들과 채팅을 하다가 함께 나누던 악담들을 ‘학습’하여, 급기야 “대량학살을 지지한다.”든가 “9.11 사태는 유대인이 만든 것이다. 이걸 인종전쟁이다.” 같은 악담을 하게 되었다. 덕분에 개통한 지 16시간 만에 폐쇄 당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조차 악담을 나누다 보면 이 악담들이 되 먹임되어 악담하는 능력, 악담하는 성향을 형성하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악담은 결국 채팅 봇 테이의 ‘죽음(잠정적이라 해도 폐쇄는 테이의 ‘죽음’이다)’으로 이어졌다.

인공지능 또한 자업자득의 인과에 매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테이가 만나서 채팅했던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다. 인종주의를 싫어하고 이주민들에 호의적인 사람들과 채팅했다면, 정반대로 말하는 법을 학습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업자득은 자신의 책임 이상으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조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연기적 조건이 그 안에 끼어들어가 업의 작용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여는 것이다. ▲

# 가책

## 呵責

呵 꾸짖을 - 가    |    責 책망하다 - 책

###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하여 꾸짖어 책망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할 때의 가책은 꾸짖으며 책망한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스님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으로 비구스님은 250개의 계율과 비구니 스님은 348개의 계율이 있다. 이는 수행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규율이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엄격한 처벌규정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규율을 적어 놓은 경전 내용 가운데 가책건도라는 말이 나온다.

가책건도(呵責健壇) 악행을 일삼는 수행자들을 가책하는 법을 설한 내용이다. 비난하다, 꾸짖다, 비난해서 물리치고 배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오던 불교용어이다. 가책은 산스크리트 아바사다나(avasatana)를 번역한 말로, 잘못을 야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는 ‘가책을 준다.’는 뜻의 불교용어인데 지금은 ‘가책(呵責)’으로 많이 쓰여, ‘가책을 받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불교에서는 율장(律藏)이라 하여 수행생활 중 지켜야 할 계율을 정해 놓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것을 가책이라 한다. 《행사초》〈승망편(僧網篇)〉에는, 가책은 비구의 죄를 다스리는 7종법의 하나로, 여러 승려의 면전에 서 꾸짖어 타이르고 35종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또 불교의 계율을 집대성한 《시분율》의〈건도품〉에는 가책건도라 하여 악행을 일삼는 수행자들을 가책하는 법이 나와 있다.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싸우기를 몹시 좋아하는 지혜와 노자나라는 두 비구가 있었다. 이들은 걸핏하면 서로 싸움을 걸었고, 싸움판에 가서는 말리기는커녕 싸움을 부채질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이내 싸움판이 벌어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석가모니는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행자들을 불러 모았다. 석가모니는 대중들 앞에서 두 비구의 잘못을 열거하며 꾸짖고는 가책갈마를 정하였다. 여기에는 잘못을 저지른 자를 가책하는 법, 가책 받은 자의 근신과 권리박탈 등의 내용이 조목조목 제시되어 있다. 즉 가책을 받은 사람은 남에게 구족계를 줄 권리, 남의 스승이 될 권리, 사미를 기를 권리,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계를 설하지 못하고, 대중에게 계율의 이치를 대답하지 못하며, 대중에게 선출되어도 수계의 스님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직책도 맡지 못하며, 대중의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그밖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좋은 의복을 입지도 못한다. ❶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져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 정각사 김윤서



▲ 실지사 김현서



▲ 실지사 강민지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홍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발행일 총기 48(2019)년 8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 불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     |     |     |
|-----|-----|-----|-----|
| 강정자 | 강민두 | 곽노선 | 권도연 |
| 권순갑 | 김덕원 | 김도연 | 김봉래 |
| 김성민 | 김송자 | 김양숙 | 김은숙 |
| 김종철 | 김희원 | 류경록 | 류승조 |
| 배도련 | 서금엽 | 손경옥 | 손재순 |
| 안한수 | 양진윤 | 유광자 | 유정식 |
| 이영재 | 이인성 | 이혜성 | 장정원 |
| 장승엽 | 장민정 | 정재영 | 주건우 |
| 지정  | 총지화 | 최순기 | 최재실 |
| 한미영 | 한영희 | 허지웅 |     |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유난히 더운 7월이었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해 더욱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도올(김용옥)선생의 <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를  
 읽으면서 더위를 날리고 있다.

P.83

“부처님은 이 천장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 먹고 못 있는 사람들에겐 보시하는 것이 부처님께  
 시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 머슴이나 하인이나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시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불공입니다.”

P.120

밥 먹고 똥 싸는 것, 졸리면 자곤 하는 것이 선<sup>ㅁ</sup>이다?  
 이 깊은 뜻을 조금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결코 쉽게 넘어가는 일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임제는 여기서 “일상의 삶”  
 그 모든 것이 선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종교적  
 환상의 실체성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P.133~134

움직이는 모든 현상은 항상됨이 없다. 인과에 의해 끊임  
 없이 변한다 모든 것이 고<sup>ㅁ</sup>다! 아~ 고통스럽다!  
 모든 다르미는 아<sup>ㅁ</sup>가 없다. 주체가 없다!  
 자기동일성의 지속이 없다! 번뇌의 불길을 끄자!  
 그러면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불교의 알파-오메가입니다. 불교의 전부입니다.  
 아니! 불교가 이렇게 쉽단 말이오?



다른 이를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며, 나쁜 말을 전하지 말고,  
서로 다투어서 남을 중상하지 말며,  
듣지 않는 것을 들었다 하지 말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 하지 마라.

---

-아함정행경(阿含正經)-